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제2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한다

-9월3일, '21세기 목회현장의 변화와 목회신학'을 주제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10여 년간 개최해온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 20학기 강의가 오는 9월3일(월)개강한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21세기 목회현장의 변화와 목회신학」으로 21세기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급변하는 이 세대의 변화를 공부하고 이에대응하는 목회방법과 신학을 함께 연구하게 된다.

2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9월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주간 강의를 진행하게 되며 1교시는 19학기 목회자 세미나에 이어 이종운 목사의 시편연구가 계속되고 2

교시는 외부강사의 주제별 강의가 진행된다.

외부 참석자들을 위한 세미나 안내는 8월18일 기독교보(통합), 8월22일 기독교신문(합동), 8월25일 기독교 타임즈(감리교 연합)등 교계 기관지에 3차에 걸쳐 나가게 되며 본 교회에서는 별도로 안내 우편물을 발송한다.

목회자세미나의 등록비는 20,000원 이며 4번의 학기를 수료한 참석자는 면제가 된다.

"단기선교팀 내일 파송된다"

8월13일(월)-23(목) 태국 치앙마이로

우리 교회가 직접선교를 위해 복종의 태처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여 이제 열매 맺을 시간이 되어 해외로 첫 파송케 되는 단기선교팀이 내일 파송된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곧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 하여할 주님의 복음 사업으로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팀이 구성된 이후 단기 선교팀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무장을 하여 왔고 현지적응훈련 선교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받았다.

이제 내일부터 그들은 태국의 북쪽 치앙마이에서 현지의 이양동 선교사와 함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당을 짓고 보수하고 카렌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

단기선교팀을 파견하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된 자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선교팀이 능력 가운데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전하여

농촌전도 봉사단 은혜 가운데 봉사완료

농어촌 지역의 교회를 도와 인근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파견한 농촌 전도봉사단이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모악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8월7일(화)~ 8월10(금)까지 3일간 축호전도, 이-미용서비스, 한방진료등의 활동으로 평소 50~70여명이 모이던 모악제일교회 전도집회에 연인원 786명이 예배드렸으며 초청잔치에서 연인원 1150명이 참석, 3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장로 수련회 갖는다

장로들의 영적 갱신과 교회성장의 비전을 토론할 장로수련회가 「임하소서 성령이여」주제하에 8월14일 오후 7시 본 교회에서 개최된다.

본 교회 장로는 부부 동반하여 참석하여야 하며 15일까지 1박2일간 찬양과 함께 5개의 조로 편성되어 각 조별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며 교회성장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며 손인용 목사(덕수 교회)가 '모범적이고 진취적인 당회원'이란 주제 하에 특강을 하게된다.



- ① 전라북도 완주의 모악제일교회로 떠나는 농촌전도단
 - ② 태국 치앙마이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
 - ③ 공산국가로 떠나가는 홍의만, 윤혜경 선교사
 - ④ 농촌 전도단, 단기선교팀의 찬양
- '나는 심었고 이هل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전 3:6)

오늘 순례자 지령 500호 특집

서울교회의 창립과 함께 오직 하나님 나라 사업의 확장에 힘을 써온 순례자가 오늘로 지령 500호를 발간하게 되어 8면으로 증면 발행케 되었다.

우리에게 지면을 통해 증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교회의 공식 채널로 말씀과 교회의 대소사를 전하며 좁은 길을 걸어온 순례자는 존변언 작 「천로역정」의 성도처럼 우리의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위에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하여 묵묵히 좁은 길을 걸으며 날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 정신을 올바르게 전하여 맡기신 생명중 한 생명이라도 흘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갈 것이다.

금주의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개역개정판 요 13:14-15)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Jn 13:14-15)

巡禮者 時論

주5일 근무제는 신앙과 민족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정부가 주5일 근무제도를 올해 안에 법제화하고 이르면 2003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교회는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일제 식민지 체제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고 공산주의 폭거 앞에서도 야합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온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한국교회는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방향을 정해주고 조타수가 되어 왔다.

이제, 한국 교회는 민족의 진로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또 한번의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찰나에 이르렀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사활이 걸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저지운동을 벌이기로 지난 6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교회발전 위원회가 결의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가?

첫째, 주5일 근무제는 십계명에 위배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옛세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이레 되는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월력에 의하면 일주일 중 하루를 쉬도록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신앙의 고백이며 명령이다. 이같은 성경말씀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나 그렇지 않은 이도 누구나 그 법과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터에 왜 잘못된 서구의 제도를 선진국형이라는 미명하에 답습하려 하는지 염려된다.

둘째, 주5일 근무제는 향락산업을 부추기고 소비성향을 크게 자극할 것이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성경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위해 산다는 것은 굳이 기독교 노동관을 말하지 않더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물론 우리에게는 적당한 쉼이 있어야 한다. 그



이중운 목사

막스 베버는 장로교회의 창설자 칼빈의 직업·노동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현세적 금욕(Die Innerweltliche Askese)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제한적인 인간의 부에 대한 욕망 그리고 생활에서의 향락을 억제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버려야 한다.

셋째, 주5일 근무제는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근면과 절제를 강조하면서 노동신성을 주장해 왔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해, 하나님 명령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나라 개화기에 민족의 지도자요 애국자였던 남궁억 선생의 작사로 1930년대부터 불리웠던 찬송가의 한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노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 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대하였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출판한 막스 베버는 장로교회의 창설자 칼빈의 직업·노동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현세적 금욕(Die Innerweltliche Askese)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제한적인 인간의 부에 대한 욕망 그리고 생활에서의 향락을 억제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버려야 한다.

주5일 근무제가 잘못된 정치적 목적이나 타락한 안일주의에 근거한 발상이었다면 이제라도 진정한 애국심을 갖고 옛세동안 힘써 일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5일 근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육신의 회복과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발표대로 보면 현행 휴가 제도를 유지한 채 주5일 근무제로 전환할 경우 휴일수가 연간 165일에서 175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많게는 휴일이 연중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휴가가 기 위해 일한다는 서양인들의 타락한 노동관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이 많은 휴일을 건전하게만 이용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가선용 문제로 골치를 아파하는 청소년 계층의 지도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고 놀고먹지는 식의 사회의식이 점차 팽배할 터인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더욱이 성수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온 교회는 긴 주말제도로 인해 신앙심이 약한 성도들이나 준비되지 않은 예비 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란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어렵게 될 것이고 주말이 되면 도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역기능이 일어날 것이다.

**순례자
지령 500호를
축하하며**
이응선 장로(2교구)

「서울교회 창립예배 드리다」1면 토크사를 시작으로 1991년 11월24일 서울교회 설립과 동시에 창간된 순례자가 드디어 500호의 연륜을 갖춘 믿음직한 교회지로 자리 매김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를 이루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발행인 이종윤 목사님과 출판국장을 비롯한 편집인, 간사, 기자 모두의 숭고하고 신실한 믿음과 헌신적인 수고의 땀방울의 결실임을 믿고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종윤 위임목사님은 창간호에서「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서울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로운 이름을 위하여 순례자가 반포될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순례자는「하나님의 목회」의 전도지로서 세속화되어 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회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처럼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는 진리의 말씀이 연재되어 우리신앙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교회의 산증인이며 역사로서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소중하게 읽히며 간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성경적 생활 원리에 입각한 신행일치의 삶을 신앙간증으로 혹은 시로 담방기사로 면면을 장식했을 때 우리는 같이 감동하였고 기뻐하였으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때로는 안타까워 울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도의 따뜻한 사랑의 교제도 나누었다. 순례자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였고 선한 이웃으로서 교회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한다. 2000년 12월25일 성탄절 새 예배당 입당을 앞에 두고 순례자는 1면에 입당날짜가 몇일 남았다고 세어나갈 때 우리의 가슴 설레임과 가슴 조이는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기도 드리며 온 성도가 힘을 하나로 모았다.

먼 옛 날 내가 창간호를 보며 감격하였듯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그러하리라 믿는다. 창간호에서 서울교회가 창립되는 것을 「하늘도 놀라고 땅도 감격하였다. 우리는 한뜻이 되었고 한 물줄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줄기가 되어 심령이 갈한 한국교회에 주님 생수만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은혜로운 이름을 전하는 순례자가 되기로 기도 드리며 성도들의 많은 애독과 전도지로서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시작이 완성이었다.
김광신 장로(1교구)

시작이 반이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세상일은 시작만 하면 어떻게든 진행은 되고 잘하면 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교회가 탄생하는 제야의 종소리를 울리는 역할을 순례자가 맡아서 그 첫 호를 발간하는 감격의 설레임을 아직도 지우지 못

**지령 500호를
축하하며**

하고 있는 터에 세월은 흘러 지령 500호가 되었다니 감사와 찬양의 단어만 떠오를 뿐이다. 서울교회를 시작할 때는 언제 반이 지나고 언제 완성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압축시키고 당겨주셔서 새성전 입당까지 허락하심으로 명실공히 완성을 허락하셨으니 어찌 인간의 염려와 걱정을 앞세울 수 있으랴. 서울교회의 시작은 짧은 시간에 완성을 보여준 증거였고 그것을 문자 적으로 기록한 신문이 순례자였으니 남이 보기에는 그렇고 그렇더라도 자기자식 자랑하는 부모처럼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보배롭고 귀한 것이 순례자일 수밖에 없다.

더 큰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순례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지령 500호를 축하한다.

**선교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영기 장로(7교구)

순례자 500호에 즈음하여 그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자를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랑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순례자 편집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보냅니다. 국내, 외적으로 진정 살아있는 전도와 관련한 신문이 그 어느 시대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이 때에 순례자는 주의 나라 확장과 복음전파에 더욱 크게 공헌하는 주간 신문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순례자를 사랑하는 수 많은 국내, 외의 애독자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계속 발전하여 주변국의 언어로도 발간되어 주간 순례자를 통한 선교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울교회 '순례자'
지령 500호
축하 메시지**
오세훈 (국회의원)

진리와 사랑을 전파해온 '순례자' 지령 5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서울교회는 '순례자'를 통해 진리와 사랑의 실천으로 지역민들의 신임을 받아왔고 겸손하게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주신다면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순례자 지령 500호 발간을 맞아 언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하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
박은경 집사

순례자가 지령 500호를 맞이한다니 축하

드립니다. 제가 시작한 것이 99호 부터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곳 캐나다에 온지가 만 1년이 되었는데 그 직전까지 편집하다왔으니...

제가 꽤 많은 시간을 순례자와 함께 보내었네요. 지나고 보니 교회일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었던가를 알 것 같고 순례자를 만드는 손길에 멀리서 응원하면서 부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순례자일을 하면서 과분한 사랑도 많이 받았고 감추고 싶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밤도 많이 새우고 나의 일상은 그저 순례자와 함께 굴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를 하면서 신랑도 만나 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큰 상급인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시집을 가니 시댁의 대소사도 순례자에게 양보하곤 했고 첫아이를 낳을 때도 친정 어머니의 기도제목이 토요일에 아이낳고 화요일에 퇴원해서 교회일 핑크나지않는 것이었는데 어머니의 기도대로 되어서 그 주간에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니 좀더 넉넉한 마음으로, 좀더 연구하는 자세로 충실치 못했던 것 부끄럽고 아쉽기만 합니다.

멀리있지만 순례자의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순례자여
네 날개를 펴라!**
정운돈 목사

순례자여
네 날개를 펴라!
넓게 그리고 높게.

하늘을 오르는 독수리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열린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타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여기 머물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부름을 따라
보냄을 받아

그늘진 어두운 곳
잊혀진 땅으로
위로와 사랑을 담고
작은 가슴속까지

달려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더 멀고 험하되
닫고 온전하기를.

순례자여
너의 길을 떠나라.
(2001년 순례자 지령 500호를
노래하면서.)

순례자 지령 500호 기념 기획특집

"교인 100명에게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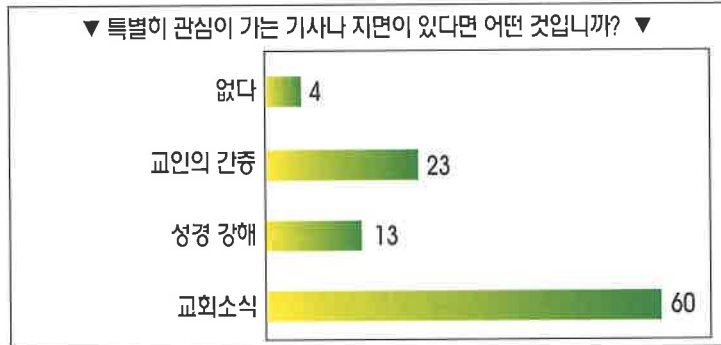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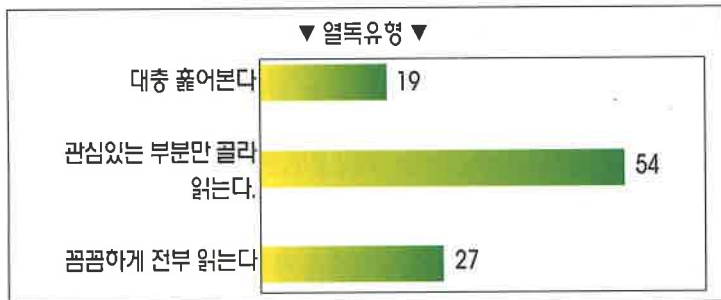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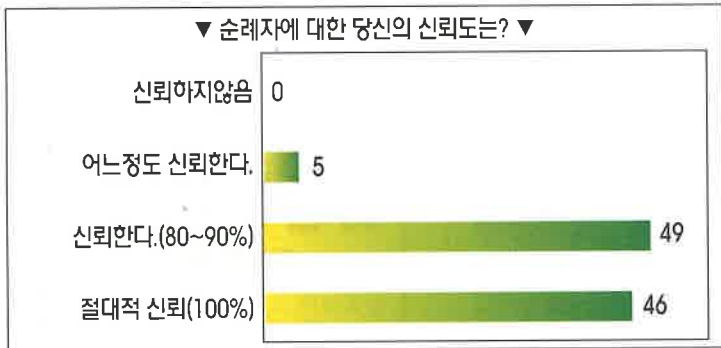
순례자가 지령 500호를 맞아 지난 7월30일부터 8월 5일 순례자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순례자에 대한 교인들의 솔직한 평가와 이의 철저한 분석으로 효과적인 복음을 위한 순례자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화하고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수거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순례자에 대한 신뢰도, 우리 교인들의 열독(閱讀)유형, 기사와 편집 수준, 역할수행 정도, 순례자의 위상 등을 질문 하였으며 100매를 수거, 분석했다. <편집자 주>

순례자에 대한 우리 교인들의 신뢰도는 무척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중 49명이 '80~90% 신뢰'라고 응답하였으며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사람(100%)도 46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본지에 대한 교인들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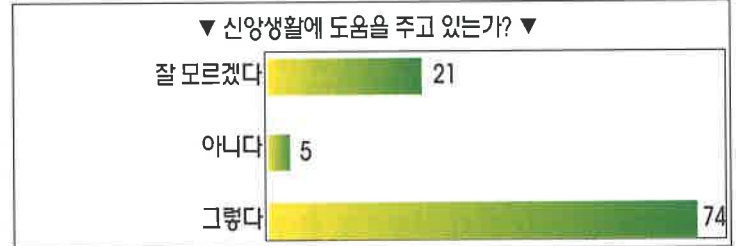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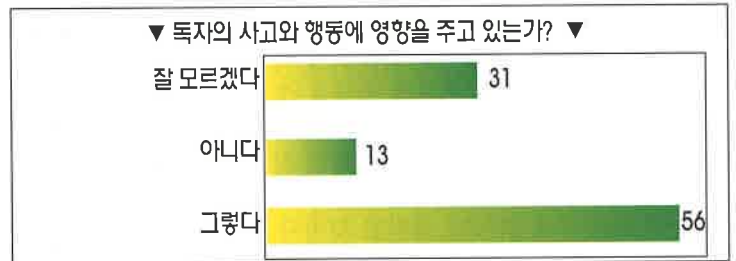
우리 교인들의 열독(閱讀)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응답자중 54명이 관심 있는 부분만 골라 읽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꼼꼼하게 전부 읽는다는 응답자는 27명, 대충 훑어본다는 응답은 19명이었다.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기사는 교회소식이라는 응답이 60명, 교인의 간증이라는 응답자는 23명, 성경강해라는 의견은 13명으로 순례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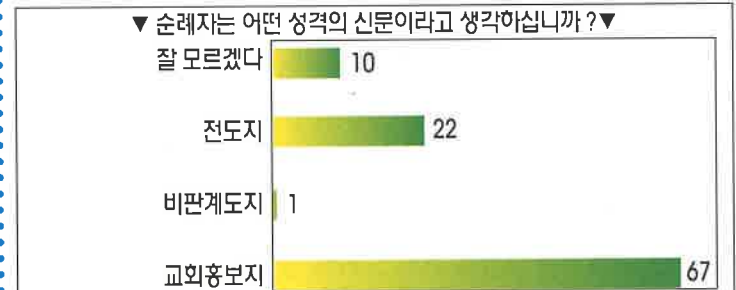
우리 교인들은 순례자의 기사와 편집 수준에 대해 대다수의 교인들이 긍정적이며, 평균이상의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편집진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례자의 역할 수행을 평가하는 총 6개의 항목에서는 '그렇다'라는 답변이 '독자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56명,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74명, '한 주간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66명, '교우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과 삶을 나누게 해준다' 61명, '교회 내 원활한 의사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60명, '독특하고 건실한 서울교회 문화의 육성과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67명으로 나타나 순례자의 역할 수행의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순례자는 '어떤 성격의 신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순례자의 위상을 묻는 질문에는 67명의 교인이 '교회 홍보지'라고 답하였으며 22명이 전도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10명, 비판 계도지라고 답한 것이 1명이었다. 순례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당초의 순례자의 기본 특징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사결과라고 해석되며 이제 순례자는 교회의 신문으로서 독자적인 위상 확립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순례자가 더욱 강화해야 할 내용으로는 각 항목별로 그렇다라는 답변이 '복음을 더 철저하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72명, '대 내외의 급변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한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71명, '비판적이고 어두운 면을 들춰내는 것 보다는 맑고 긍정적인 기사의 발굴에 더욱 힘써야 한다' 72명, '교인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92명, '교인들이 보내온 생활 수기,간증들이 더욱 많아야 한다' 65명, '비 신자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교양적이고 감동적인 글들이 실려야 한다'가 73명으로서 우리 교인들은 순례자의 위상에도 걸맞도록 교회의 성장에도 일조하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시환 (편집부)

2001년 8월 9일
서울교회 802호

진행 : 노승성 장로(순례자 편집부장)

참석자 : 이종윤 목사(당회장), 홍순복(시모), 고경선 목사(순례자 지도), 정윤돈 목사(교역자 대표), 정병우 장로(당회 서기), 최정자 권사, 이영희 권사, 이연숙 권사, 이복규 집사, 유을상 집사, 최차순 집사, 김정란 집사, 김복승 집사, 이대중, 오혜진 /순례자 편집부 - 신동기 권사, 허숙 집사, 김시환 집사, 유태서 집사, 유은경, 나소정

서울교회 성도들의 여론의 장(Forum)이자, 교회 안팎의 크고 작은 소식과 이야기들을 담은 순례자가 어느덧 지령 500호를 발행하게 됨에 따라, 편집부는 당회장 이종윤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을 모시고 특별 좌담을 기획, 개최하였다. 서울교회가 대치동 시대를 맞아 교회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성장의 장기적인 비전과 성도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로 교회의 발전에 대한 모색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목사님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편지로 순례자를 이끌어주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복음 선포와 하늘나라 확장에 새로운 도전과 헌신과 각오로 임하는 순례자가 될 것"을 당부 하시며 순례자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서 보듯이 순례자(pilgrim)의 행보가 우리들의 걸음과 같아지기를 소망하는데서 지어진 이름이며 이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단어이기도 하다. 본 좌담회는 4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울교회 성장의 요인과 원동력

진행자 : 서울교회는 지난 10년동안 큰 폭의 변화를 경험하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왔으며, 이제 새성전 시대를 열어가는데 시점에서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다 큰 진전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가속화되는 변화의 조짐을 읽어내기 위해서 서울교회의 성장의 배경과 현재적 의의와 그 성장요인과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찾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복규 집사 : 초창기 서울교회를 떠올려보면, 500여 가정이 모퉁이 돌이 되어 마른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대치동 새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1+1=100"이라고 강조하시던 이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앞으로의 교회 부흥에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기존 성도들의 헌신과 더불어 새 신자에 대한 겸손한 섬김의 자세와 온 성도의 순종입니다.

최정자 권사 : 순종의 모델로 목회자 세미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권사님들께서 김밥을 싸는 봉사하시는 모습은 "건지 않고 뛰는 성도들"을 연상시켰습니다. 서울교회의 초창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달려온 성도들이야말로 서울교회 성장의 요인이자 원동력입니다.

편 : 최근 청년부의 부흥에 교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성장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대중 : 요즘 세대와 젊은이들을 놓고, "쌍둥이에게도 세대차이는 있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역할이 교회 내 성도들을 묶어주는 것에 있는 것과 같이, 청년부의 역할은 교회 내 여러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청년부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지금까지 교회가 견지해온 목표와 그것이 무엇을 발판으로, 또한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한 것이었는지를 바로 알고 이것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10년은 강산도 변한다는 역사의 시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겨우 10살박이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20년, 30년 후 청년으로 성장할 서울교회의 주된 일꾼이 될 청년부원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바로 알고 준비하는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

- 순례자 지령 500호 특집 좌담회 -
교회성장의 장기적인 비전과 성도의 역할과 사명
정리-나소정(편집부)



되어 세상을 닮지 않도록 사는 것, 작지만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한 큰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교회의 정세 현상과 성장 둔화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

편 : 최근 한국교회의 성장은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일수록 한국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선 목사 :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고, 부흥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새 사람이 와야 하고 둘째로, 새 사람이 정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로, 새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사역 분리표의 활용과 개척 멤버들의 열린 마음은 새 사람의 단련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성경대학이나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 전도학교, 음악교실 등의 프로그램 외에도 추후로 전교인 대상의 단계적 성경공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1부 가족예배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반의 그간의 성과를 돌이켜보면 이제는 서서히 정착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데, 이는 서울교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윤돈 목사 :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힘, 의지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By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순복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장로님들과 새신자들이 어울려 설거지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교회 부흥을 위한 성장과 성숙은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홍순복 사모 :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면, 초창기 성도들의 감격을 잊을 수 없고 지난 일도 감사, 현재도 감사, 앞으로도 계속 감사가 끊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성도들에 비해 영적 민감성이 둔해지는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도의 사명과 비전

편 : 대치동 교회 시대를 열면서 이제는 이곳 지역사회의 교회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이며 이 사명은 교회 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최차순 집사 : 먼저 교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교회로서의 역할을 위한 성장에 있어서 서울교회는 이미 하드웨어를 완비해 놓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역피라미드식의 성도 분포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 전도 프로그램과 교회 내 시설의 개방, 한티공원의 활용 등 지역적 메리트를 심본 활용하여 지역

사회와 교회의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란 집사 : 저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섬"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진정한 옹화의 단계는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선 기존의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정보사회에 멀티미디어나 인터넷을 활용한 다각적인 접근 또한 아쉬운 부분들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편 : 서울교회의 젊은 피, 대학부를 섬기고 계신 오혜진 자매는 서울교회가 처한 지리적인 의미와 비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오혜진 대학부 회장 : 서울교회 젊은이라면 누구나 청년 못지 않은 열정과 헌신으로 모범을 보이고 도전하는 신앙의 선배와 많은 어른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례자를 통해 이러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고 목사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학부에서는 관계중심적 전도의 한 방안으로 초청전도집회와 문화행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교, 자기부인, 헌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젊은 세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또한가치 안타까운 것은 전교인이 참여 가능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향해야 할 것들, 집단화 현상

편 : 새가족이 많아지면서 소위 "끼리끼리"라는 집단화 현상이 생겼다면, 이는 교회성장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새가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교회는 새가족들의 정착과 옹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천착해야 할 것입니다.

김복승 집사 : 제가 서울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목사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새신자들에게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말고도 저와 같이 다른 교회에서 다년간 봉사한 경험이 있는 새신자에게도 12주간의 새가족부 교육이 시행되며, 교사들과 부장, 부감들의 헌신과 돌봄이 지극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부지런한 장로님들께서 식당과 차량 봉사 등 낮은 자리를 섬기는 모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베들레헴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이와 같은 서울교회의 환경과 도움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가족부를 수료한 후 1년 정도의 전담 관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연숙 권사 : 모든 일에 본을 보이신 목사님을 닮으며, 예수님을 좇아 섬겨온 지난 10년이 세계는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주일봉사 뿐 아니라 주중의 교회 행사에도 많은 이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봉사부서의 폐쇄적 분위기를 일신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 부서 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집단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유을상 집사 : 기존 성도들과 새 성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친교가 중요합니다. 새신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지체가 되려면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새가족부의 문턱을 넘은 많은 새신자들이 기존 성도들의 냉랭한 분위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권사 : 새가족부는 유대감과 소속감, 목적의식과 기대감, 생동감이 한데 넘치는 그야말로 작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 관리가 각 부서로 원활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봉사의 기회가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
(8면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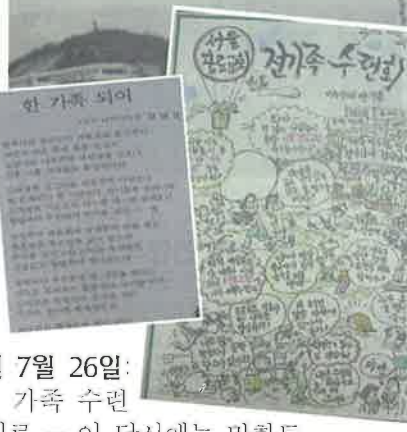
순례자 500호, 지나온 발자취



1991년 11월24일: 역사적인 제1호 - 창립예배 드린다. 출애굽 대항진으로 준비한 후 하나님 역사의 큰 획을 긋는다.



1992년 7월 26일: 전교인 가족수련회 갖기로 - 이 당시에는 만화도 있었네요!



1995년 1월 22일: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 운동의 시작 - 농어촌 교회의 재건과 부흥 없이는 민족복음화의 길도 요원하다.



1995년 9월 17일: 현재 대치동 부지 확정 -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고도 놀라운 것이었다. 이때부터 세 예배당 건축에 박차를 가하다.



1992년 4월 5일: 제1학기 목회자 세미나 개강 - 봉사자의 사진에서 먼저 가신 고 이신 일련사님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1992년 5월 17일: 김치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다 - 세계복음화의 활력소가 될 김치세미나



1992년 6월 6일: 흥해작전 '새 술은 새 부대에' - 새벽기도 운동으로 민족의 아침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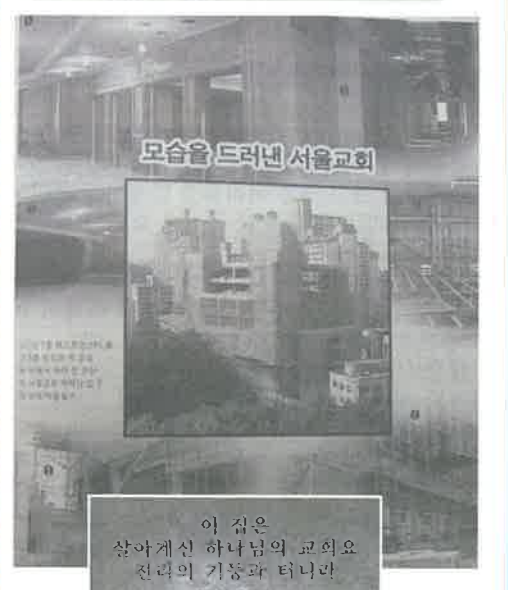
1993년 5월 2일: 제1회 한가족 한마음축제 - 연합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994년 4월 17일: 논현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반포동 시대의 개막을 알리다.



일곱촌대세워 세계 선교센터가 될 터 새 예배당 헌당 기념행사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전리의 기둥과 터니라 (빌립 3:13) 주후 2000년 12월 25일 새 예배당 서울교회



교회 건축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 순례자 -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



1997년 7월 20일: 세 예배당 건축을 반대했던 주민들이 반대를 거둬들여 건축의 걸림돌이 해결되다. - 그 당시의 안타깝고 힘들었던 일을 이제는 웃으며 회상해 봅니다.

1998년 2월 1일: 심히 위태로운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해 배움을 입는 심정으로 민족회개의 운동을 전개하다.



1998년 7월 12일: 서울 시민대학 개최 - 1998년은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절이었다. IMF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창업과정을 마련하였다.

순결서약식: 하나님앞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자. - 순결서약식은 '정직, 절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1995년에 시작하여 매년 첫 주에 시행하고 있다.



1999년 2월 15일~16일: 성경통독사경회 - 구정연휴기간이 신앙을 증진시키는 은혜로운 기회이다.



전도운동이었던 비전2000운동은 군복음화에 앞장서면서 비전 2020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6년 7월 28일: 기독교 교도소 추진위 소년보호시설등 3가지 사업방향 확정 - 2001년 7월 22일 '하기회'라는 법인을 발족, 교도소 설립 본격 추진



2000년 4월 9일: 은빛 찬양대 발족 - 인생의 노년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1999년 3월 14일: 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의 전개 - 현재 총 일천백만명이 서명하여 UN에 청원한 상태이다.



2000년 8월 13일: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멀티미디어봉사단을 창단 - 젊은 교회로 부상하는 서울교회



먼저 가신 장로님들의 기도가 새 예배당의 모퉁이들이 되어 쌓인다.



2000년 12월 24일: 세 예배당 입당 - 감격의 입당예배, 이때부터 순례자의 컬리시대가 열렸다.

가능성 화장품 및 미용부자재 제품 무역업체인 (주) 르본을 경영하고 있는 신용식 집사는 1980년에 김신영 집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호, 채호 형제를 두고 있다. 본래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는 그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술자리가 생기면 본인은 교회에 다니므로 술을 하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사양했다고 한다. 사실 이전부터 그는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었다. 그런 그는 어머니의 인도로 1979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부터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다. 처음 접하는 성경 말씀이 어찌 그렇게 달던지 한때는 신학을 할까 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다.

10년간 서울시 산하 행정직 공무원 생활을 하던 신 집사가 전격적으로 화장품 무역업으로 직업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었다. 당시 그는 공무원이란 직업 자체에 만족하고 있어서 직업을 바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셨다. 1985년, 그는 화장품 무역업에 뛰어들었으나 생소하기만 한 사업이 처음부터 잘될 리 없었다. 우선 충분한 자금이 없었고 경영기술도 부족하였거니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경영을 소신껏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투자된 돈이 바닥 나 있었다. 이때 그는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한 길로 세차게 몰고 가셨다.

점차 사업의 안정을 찾은 신 집사는 1993년에 충북 영동에 라필로스 화장품 공장을 새롭게 설립했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것처럼 IMF 한파로 또 한 번 사업의 위기를 맞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 1997년 (주)르본의 자매회사인 (주) P.C.K.를 설립하여 김신영 집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가 이처럼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배경이나 남들처럼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환경은 사업을 하기엔 충분치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집사를 향한 계획이 계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을

- 예수님을 최고 경영자로 모시고 -

라필로스의 예수님과 함께



신용식 집사, (1 교구)



갈 뿐이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수년 후에 미국에 화장품 제조공장 및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한다. 미국은 정보화 시대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신집사에게 있어 사업상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이 또한 미국이기 때문이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신 집사는 일찍부터 집안의 기둥노릇을 했다. 그래서 그는 남달리 책임감이 강했고 때때로 자신을 너무 혹사한다. 그가 처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누님은 사실일 동안 밤을 꼬박 새우며 철야 기도를 했고 신집사부부도 사업을 위해 작정기도를 시작했다. 그에게는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다. 특히 다락방 식구들이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써주셨다. 그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경건회를 갖고 있으며 매일 기도하므로 하루 일을

시작했다. 사업이 굴곡을 겪는 가운데도 그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다. 때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다가 새벽을 맞는 날이 많았고 쉬는 날에는 말씀공부를 휴가 때는 기도원을 찾았다.

1990년도부터 기독교실업인회 CBMC에 참여한 신 집사는 1993년에 강사로 오신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신앙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그리고 깊이 알게 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진정한 목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한다.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아는 김 집사는 항상 남편의 말에 순종한다. 아니 남편을 보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생활, 사업에 대한 집념, 매사 열심인 그의 모습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이 래져 생활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신 집사의 취미는 오직 사업과 교회뿐이었다.

최근 그에게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앞만 보고 달려왔고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해보지 않았다. 무모하고 미련한 일이었다. 사업장에 뛰어들어 다니라, 외국출장 다니라, 교회일 하라 항상 바쁘게 살면서 정작 본인의 건강은 돌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셨다.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는 필요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그는 매일 저녁 양재천을 달린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처음 해보는 일이다. 어둠이 스며드는 양재천을 달리며 그는 지금까지 달려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떠올라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가 하면 지난날 자신을 기도로 돕고 어려울 때 선뜻 물질을 내어준 사람들을 생각하며 추억에 젖기도 한다.

허숙 (편집부)

(5면에서 계속)니다. 결국 이러한 원인은 100%의 성과를 거두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기존 성도의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열린 마음이 절실합니다.

이종운 목사 :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심는 자와 기르는 자는 구별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나, 분명 인간이 감당할 부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이 자리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성장의 요소를 첫째, 성령충만 둘째, 말씀 충만 셋째로 사랑충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중 제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진정으로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순례자 편집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순례자가 성도들에게 교회의 방침과 운영사항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안내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과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나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우리 서울교회가 되기 위해서 순례자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편 : 순례자는 앞으로도 서울교회의 시금석으로 맑은 바 사명을 다하며 보다는 내실을 부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의견 개진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TV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4일 한국로잔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김광신 장로 이인선 권사 수지(12교구) 로 이사
- 허희철 집사 이연숙 권사 분당(12교구)으로 이사
- 이갑진 장로(12교구)는 지난 6일 국가대표축구단 단장으로 유럽전지훈련 인솔차 출국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송두심권사 가정 - 딸의 결혼을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단기선교팀의 영력을 위하여
2. 동북아로 파송된 홍의만 유혜경 선교사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안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